

기념사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며 발전하는 원자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입니다.

먼저, 제10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축하합니다!

원자력의 날은 매년 기념식 행사를 통하여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를 드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올해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수상자와 그 가족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되면 조속히 자리를 마련하여 직접 축

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원자력의 날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내 기술로 설계한 원전을 수출하고, 성공적으로 건설을 완수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원자력 기술 강국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과는 원자력계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원자력계 종사자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최근 원자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는 날로 높아

지고 있으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스르기 어려운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세계 원전시장은 대형원전 중심에서 중소형원전과 다목적원자로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력은 새로운 방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우리사회가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그간 축적된 기술과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수출전략산업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원자력이 주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원자력 연구개발에 전년보다 250억 원이 늘어난 총 3,1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가동원전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영구정지 된 고리 1호기를 활용하는 안전 실증사업이 내년부터 신규로 시작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 8년간 9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원전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과 처분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265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고리 1호기의 해체시점에 맞추어 해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안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선진 소형원자로기술개발 등 혁신적 연구개발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딛고 원전을 수출하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노력의 열매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도전과 헌신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축하드리며, 2021년 새해 원자력계 모든 분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IIF**